이베로아메리카 제9권 2호(2007. 12): 253-294

브라질 좌파의 집권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 노동자당(PT) 룰라의 대선승리요인을 중심으로*

최 금 좌

<Abstract>

How did the Brazilian leftist party w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Reasons for the victory of PT's Lula

With the question of "How did the Brazilian leftist party w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Reasons for the victory of PT's Lula",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cess of 2002 presidential election in Brazil, considering three principal elements. First, the deception to the Cardoso's government for the economic reasons, not ideological reasons, which had started to adopt positively the neoliberalism since Brazil's redemocritization and it strongly affected Brazilian society especially regarding to the problems of distribution and unemployment; second, PT's strategic change to win in the elections since its formation, maintaining its position criticizing severely the neoliberalism, gaining its popularity for governability through the experience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Porto Alegre. The PT's strategic move to the center continuously transformed its internal institutions was regarded as credible by voters, in which the ordinary members could influence the party's direction; third, disillusion and discredit to the conservative elite politicians because of political corruptions and scandals through the process of privatization.

* 이 논문(영문제목 How did the Brazilian leftist party w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Reasons for the victory of PT's Lula)은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9-BS0023).

And as other elements, electoral advertising campaign on TV and the results of public opinion polls after candidates' debate on TV had affected the indecisive electorate, especially women and old people with little regular schooling, to vote for the victory of Labor's Party candidate, Luís Inácio Lula da Silva, besides his charismatic popularity under the circumstance of Brazil's fragile political party system.

[Key Words: Brazilian elections in 2002 / failure of neoliberalism / PT's change / privatization and corruption / electoral advertising in television and public opinion polls]

[주제어: 2002년 브라질 선거 / 신자유주의 실패 / PT의 변화 / 민영화와 부패 / TV 선거 캠페인과 설문조사]

Ⅰ. 들어가는 글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남미의 이웃 국가들과는 달리, 한 번도 진정한 혁명적 위협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 1822년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획득할 때도 궁정 반역자들의 간단한 독립선언으로 이루어졌고, 1889년 군주제에서 공화제로의 이행 때도 군부가 주도한 무혈 쿠데타로 가능했다. '시민사회' 전통이 대단히 약했던 브라질에서 군부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막강한 권력행사를 할 수 있었으며, 또한 엘리트들은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겪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조직사회에 대한 전통이 거의 없는 나라, 파편화된 나라, 비형식적인 나라"에서, 대도시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결집한 노동계급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진보적 가톨릭 세력, 교원노조, 학생운동단체 UDN의 도움을 받아, 1980년 새로운 좌파 정당인 PT를 결성했다. 사회의 파편화된 동력으로부터 나온 PT는, 자신의 태생적 여러 정파를 통합해 내면서, 브라질 엘리트들의 권위적인 정치관행-후견주의, 밀실주의, 정치적 부패-에 반기를 들며, 브라질의 성장 잠재력으로 좌파정권을 태동시켰다 (Sader 2002).

2002년 브라질 대선에 나온 네 명의 후보들은 역시 브라질 정치의 특성상

정당간의 연합을 통해 등장했다. 룰라(Lula, 노동자당 PT)는 자유당 PL, 브라질 공산당 PCdoB, PCB와 연합했고, 여당의 세하(Serra, 사회민주당 PSDB)는 브라질 민주운동당 PMDB와, 고메스(Gomes, 1998년 대권도전, 사회민중당 PPS)는 민주노동자당 PDT, 브라질노동당 PTB와, 그리고 리우 데 자네이루 전주지사를 지낸 가로치뉴(Garotinho, 브라질사회당 PSB)가 경합했다. 그러나 제1차 선거에서 그 누구도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룰라 유효표의 46,44%, 세하 23,20%, 가로치뉴 17,87%, 고메스 11,97% 획득), 최상위 득표 후보 2명이 결선투표에 임했다. 이 때 룰라는 가로치뉴와 고메스의 지지로 그들을 지지했던 PSB, PDT, PTB의 지원을 얻어, PT 창당 22년 만에, 그리고 자신의 네 번째 대권 도전 끝에 브라질 제3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룰라 유효표의 61.3%, 세하 38.7%).

역사상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거의 겪지 않았던 브라질 사회는, "국민들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선거공약을 내세운 룰라의 당선에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실현가능성에 환호했고, 안토니우 칸지두(Antônio Candido)와 같은 브라질 문학비평가는 "브라질 정치와 사회에 대한 구원"이라고 정의했으며,[1]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신선한 충격이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고하는 21세기 경사'라고 표현했다.[2] 하지만 룰라의 당선 첫 소감 – "평화 속에서 바뀌고 있는 브라질이 희망으로 (좌파에 대한) 공포를 이겨냈다" – 과, 그 이듬해 1월 취임연설 – "브라질 국민들이 온갖 적대적인 편견, 즉 (공산주의의 상징인) 붉은 깃발에 대한 공포, (자신의 상징인 지저분한) 털보에 대한 공포 등을 극복했기 때문에 자신을 선택한 것" – 은 유권자들의 좌파와 노동자 출신인 룰라에 대한 편견극복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세계는 브라질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 – 미국의 본토와 맞먹는 크기의 영토와 2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나라 – 에서, 80년대 후반 워싱턴 컨센서스의 등장이후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가 베네수엘라의 챠베스(Cháves)에 이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새로운 좌파 정치의 부활"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것이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한

1) Antônio Candido, "Um presidente, muita esperança", *Folha de S. Paulo*, 2002/10/28
2) *Folha de São Paulo*, 2002/11/13

절차상의 민주주의를 존중했다는 데에, 즉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공고화”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주의 하에서 정권교체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변수가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집권당의 실패가 분명해야 하고, 둘째, 집권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기존 집권당보다 유능하여 유권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해야 하며, 셋째 그것이 새로운 집권당으로서 선택할만한 유능한 정당이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브라질 유권자들이 정치사상 처음으로 좌파정당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 1) **기존의 보수정당에 대한 실망**(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작용)이 유권자로 하여금 어떻게 **새로운 변화의 모색하게 하였으며** 2) 이 새로운 대안을 우파나 중도파가 아닌 **PT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좌파정당에서 찾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왜 우파나 중도파에서 찾지 않고, PT에서 발견하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좌파정권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주로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금융부문의 급성장 및 산업부문의 상대적 약화, 실업률 증가 및 분배의 양극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민주화에 대한 열망으로 8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전통지배구조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 강화로, 유권자들의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관계있다(오삼교, 2007, p.239). 그런데, 2002년 브라질 사회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읽지 못한 보수당의 대선 후보들은 13년 전 룰라가 처음 대선에 참가했을 때와 같은 문제-인플레, 외채, 브라질 화폐가치 하락-에 열중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전환기시대 당시 진행 중이던 경제발전모델을 옹호하는 세력 대신, 새로운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세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카르도주 정부(1995~2002)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무역자유화와 재정적자 축소, 민영화와 외자유치에 집중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브라질 경제를 악화시켰다(GDP의 -20.2% 감소). 헤알계획(Plano Real)으로 만성적 인플레는 억제하였으나(9.1%), 오랜 기간 동안 헤알화의 인위적인 고평가는 무역적자를 증가시켰고(-10%),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고금리(연 35.4%) 정책은 국내부채를 크게 증가시켜(1994년 총생산의 30%에서 2002년 55.5%로 증가), 경제성장률

을 크게 저하시켰다(1990년대 1.8%). 특히 거대 도시지역의 소득은 평균 8% 감소되고(CUT, 2000:16), 실업률은 급증했다(1995년 6.5%, 1998년 9.5%, 2002년 10.5%). 또한 해외부채(1994~2002, 800억불)로 인한 외부에 대한 취약성 증대는 1999년 경제위기를 촉발시켜, 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했다. 외국자본유입 보장을 위한 고금리정책은 재정을 압박하여 금융부문의 성장 및 산업부문의 지속적 악화를 초래했다. 이에 카르도주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꾸준히 비판해 온 PT의 입지는 자연스럽게 강화되었다. 그들은 산업성장을 통한 실업문제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가들의 지지까지 획득하여, 파산에 처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경제실패만으로는 왜 다른 우파나 중도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을 대안으로 선택했는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PT가 브라질 유권자에게 어떻게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으로 인식되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카르도주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부패스캔들이 불거져 나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전략적 국영기업체인 CVRD(철강회사)와 Telebrás(통신회사)의 민영화였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민영화 그 자체가 아니라,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브라질 전통 지배엘리트의 부패였다. 국민들의 지배엘리트 계층에 대한 염증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다당제하의 소수파 정부가 갖는 대의회 교섭력의 약화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브라질 정치에서 통상적으로 부패수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를 불문하고 의회의원들과의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보수정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조장한 근본 원인으로, 보수정파의 분열과 권력을 찾아가는 철새 정치인을 양산하는 브라질 선거제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데 PT는 지방정부 성장, 취학장려금 지급, 참여예산제 등 혁신적 정책대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질적인 브라질 경제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정당이라는 기대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PT가 축적한 깨끗한 반부패세력이라는 정치적 이미지가 지배 엘리트의 부패와 무능에 염증을 느낀 브라질 유권자에게 참신한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1) 카르도주 정부의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부작용은 무엇이며, 그것은 룰라

의 당선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2) 룰라와 PT는 세 번의 대선 실패 경험을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어떠한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였는가?
3) 브라질 유권자가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은 이유와, 브라질 일부 기업가들까지 친노동적인 룰라를 지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본 논문은, 브라질 좌파정부의 탄생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브라질의 국내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났다는 가정 하에, 기존의 좌파정권의 탄생에 대한 이론적 입장-신자유주의 개혁 실패론, 신자유주의 부작용에 대한 반발론, 좌파의 변화론, 우파의 무능 및 부패론 등-을 고려하여, 카르도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에 대한 불만, 좌파 PT정당의 변화에 대한 인식확산, 보수 정치엘리트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브라질 정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브라질 특유의 정치적 특성과 선거제도, 그리고 미디어와 설문조사의 선거로 정의된 2002년 대선 결과를 분석해 보겠다.

Ⅱ. 신자유주의의 실패

2002년 세계경기는 1990년대 후반의 러시아 위기, 아시아 위기, 브라질 국내위기, 아르헨티나 위기 여파로 좋지 않았다. 90년대 낮은 성장률-20세기 중 가장 낮은 1.8%로 1945~1980사이 성장률의 1/3수준-이 이를 뒷받침한다. 카르도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무역수지 적자, 외채에 대한 이자지불(1,820억불 적자 초래) 및 외채증가(같은 기간 1,48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증가)로 공공지출을 급격히 감소시킨 반면,[3] 외채에 대한 이자지불을 총 세입의 24%에서 55.1%로 증가시켰다. 더구나 1999년 외환위기와 지속적인 헤알화폐가치의 하락, 그리고 2001년 에너지 부족현상은, 여당 후보 세하의 입지를 어렵게 했다. 300억 달러의 채무상환, 200억 달러의 해외자본도피, 18~20%에

3)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교육투자부문이었다. 초등 및 중등 교육부분의 투자는 1995년 총 세입의 20.3%에서 2000년 8%로 줄었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1995년 9.2%에서 2000년 4.2%로 줄었다.

이르는 이자율은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모델의 재정적 파탄을 가져왔다. 마치 2001년 12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와 같은 방법으로 침체되고 있었다.[4] 브라질은 IMF의 300억 달러 차관으로 겨우 파산을 면했지만, 화폐가치는 2002년 1월 한 달 만에 40%이상 평가절하 되었다.[5] 경제는 침체되어 예상성장률은 0~1%에 불과했고, 브라질의 순공공채무는 총생산의 60%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유입된 외국자본은 150억 달러였던 반면, 외화유출은 500억 달러였다. 따라서 수출을 위한 해외신용도는 하락했고, 매각할 수 있는 공기업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브라질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판단한 외국금융기관 투자가들은, 브라질의 심각한 구조적 경제문제는 물론, 2002년 대선후보들을 신뢰하지 않은 채 브라질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대선 한 달 전(9월 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세하의 지지도(15%)는 두 좌파 후보-룰라(35%)나 고메스(25%)-보다 뒤떨어졌다. 이 때 카르도주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브라질 위기가 세계금융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IMF와 협약을 맺고, 네 명의 대선 후보들을 불러 3,500만 달러의 IMF융자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 그는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처럼 위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IMF가 차기 브라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여러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리고 국내외 부채청산을 위해 국내 총생산(PIB)의 3.75%에 해당하는 재정흑자를 강조했다. 이에 좌파의 룰라와 고메스[6]가 유사한 경제 프로그램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언함으로써, 투자가들의 공포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었다.

1. 민주화 이후의 경제혼란: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민정이후 브라질의 경제상황은 재정적자 심화와 고이자율 정책으로 하이퍼

4) 2001년 12월 아르헨티나는 2,600억 달러가 넘은 공공분야의 국내 및 국제 공채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5) 환율의 경우 1월 2.56에서 10월 3.55로, 환율/임금의 경우 1월 106.9760에서 10월 163.2199로 변함(출처: IPEA)

6) 고메스는 2002년 8월 IMF의 조정프로그램을 수락하고 FTAA를 지지하며, 민영화된 기업유지와 외채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며, 자유주의 시장경제론의 정신적 스승인 밀톤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제자를 자기의 제1경제보좌관으로 영입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였다. 낮은 경제 성장률-사르네이 집권기간(86~89)동안 4.46%, 콜로르와 프랑쿠 집권기간(90~94) 동안 1.31%-하에서 조세수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자 해소는 당연히 어려웠고, 이는 정부의 부채를 더욱 가중시켰다.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눈덩이만큼 불어난 재정적자 만회를 위해, 중앙은행은 통화발행과 추가적 부채조달을 위한 이자율 인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의 부채와 급격한 재정적자 증가였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의 경제안정화 정책을 불신하며 지속적으로 물가를 인상했고, 정부는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추겼다. 따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경기회복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높은 이자율 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을 멈추게 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던 카르도주는 헤알계획을 발동시켜 브라질 긴급 위기상황을 진화했다.

2. 카르도주의 헤알계획(Plano Real)

프랑쿠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에 등용된 카르도주는 헤알계획으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했다. <표 1>에 나타나듯 인플레이션은 1988년 1,000%, 1993년 2,700%. 헤알계획 직전 1년 거의 5,000%에 가까웠던 것이 1995년 15%, 1996~97년 10%, 1998년 1.7%로 떨어져, 그는 정치에 입문한지 꼭 1년 반 만에 대통령이 되었다.[7] 그는 재집권에도 성공했다. 두 번의 임기동안 그는 IMF와 월드뱅크를 중심으로 한 "워싱턴 컨센서스"를 그대로 채택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그 주요 핵심은 시장개방,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가기능 축소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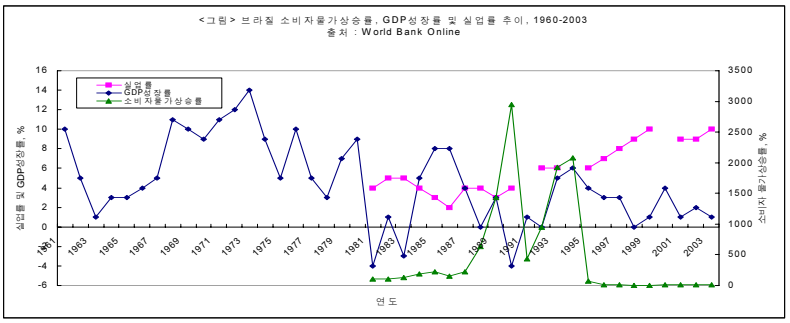
헤알계획이후 브라질은 차관,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등으로 상당히 많은 외국자본을 받아들였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채무변제, 이윤송금, 투자회수 및 자본이탈의 형태로 대규모 자본유출을 유발했다. 그리고 순 외국자본은 투자보다는 소비부문에 유입되어, 공공투자와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저축률 하락을 상쇄하지 못했다. 사실 1990년대 초 금융자유화, 주요 국영은행의 민영화, 금융기관의 국제화와 합병은 금융부문의 효율성 향상과 저축률 증

7) 콜로르 탄핵 이후 급신장세를 보이던 좌파와 룰라를 이길만한 인물물색에 고심하고 있던 여당은, 그를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했다. 그의 좌파에 대한 두 번의 승리는 사실상 우파에게는 과분한 선물이었다.

가 그리고 장기투자자금 가용성에 대한 기대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실제는 80년대 투자율은 22.2%에서 90년대 19.5%로 감소하여,[8] 저축률을 80년대 중반부터 8%로 하락했다. 즉 투자율 감소가 저축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장기간의 낮은 경제성장, 고금리, 지나치게 빠른 수입자유화, 인수합병을 통한 브라질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 악화를 초래,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률을 상승시켰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능력은 80년대 '잃어버린 10년'보다 현저히 나빴다. 특히 브라질 6대 도시 실업률은 80년대 후반 4.4%에서 90년대 6.7%로, 그리고 2000~2001년 사이에는 11.5%로 치솟았다. 특히 상파울루의 실업률은 같은 기간 6.5%에서 10.6%로, 그리고 11.7%가 되었다. 뚜렷한 산업공동화로 타격을 받은 상파울루는 지역 고용률 하락과 빈곤에 시달렸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비정규직의 빠른 증가는 브라질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를 반영했다. 즉 실업 및 불완전 고용률 상승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빈곤 및 소외계층의 증가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저하 및 소득집중을 부추겼다. 평균임금은 90년대 후반 경기후퇴 및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함께 저하되기 시작되었다.[9]

<표 1> 1960-2003년 사이 브라질 주요 경제지표



8) 2000-2004년 투자율은 18.9%로 더욱 하락했다.

9) 비록 1990~2001년 사이 지니 계수가 0.61에서 0.59로 약간 떨어져 조금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80년대 초반과 같은 수준으로 신자유주의체제하에서 불평등유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3.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민영화

카르도주 정권하에서 전략적 국영기업체들이 낮은 가격에 외국자본에 팔리거나 기부의 형태로 넘어갔다. "민영화" 결과 브라질은 재정 및 산업부문에서 국가주도권을 잃어, 주권행사를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고통을 받았다.

브라질 민영화의 특징은, 해외자본이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공장 건설보다, 여러 협상과 거래를 통해 브라질 우량기업을 헐값에 구매했다는 데 있다. 기존기업 매입에 1994년에는 브라질에 유입된 총외국자본(21억 달러)의 0.38%가 쓰였으나, 1998~1999년 사이에는 총외국자본(287억 달러)의 74.1%가 쓰임으로써, 2년 사이 브라질 우량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외국자본 213억불에 주인이 바뀌었다.[10]

따라서 21세기 브라질 경제는 외국자본에 의해 지배-전자・전기 부문 90%, 자동차부문 89%, 위생 청소・화장품 부문 86%, 컴퓨터기술 부문 77%, 전화・통신부문 74%, 제약부문 74%, 기계・산업부문 68%, 식량부문 58%, 플라스틱・고무 부문 54%-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금속・철강 산업의 경우처럼 외국자본 잠식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부분에서의 외국자본 비율은 1994~1999년 사이 0%에서 34%로 상승 했다. 소매업부문 역시 외국자본 비율이 1994년 7.1%에서 2002년 60%로 늘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대부분 브라질 자본이 소유했던 전자산업 부문은, 마치 1930년 바르가스혁명 직전처럼, 거의 모든 브라질 州의 전기회사가 외국자본에 넘어갔다.[11]

특히 은행의 민영화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다. 1994년 10%에 불과했던 외국자본 비율은, 카르도주 정권 말인 2002년에는 50%가 되었다. 따라서 외국은행 지사의 수도 1997~2002년 사이 2%에서 17%로 증가했다. 외국은행의 수익

---

10) "Triplica a remessa de lucros ao exterior(외국으로의 송금 3배 증가)", *Folha de S.Paulo*, 1999/10/03.

11) 즉 Escelsa(ES)는 포르투갈; Eletrosul(RS)는 벨기에; Cerj(RJ)는 중국; Coelce(CE) Coelba(BA), Celpe(PE), COSERN(RN)는 스페인; Cesp-Bandeirante(SP)는 포르투갈; CEE-CO(RS의 중서부), Eletropaulo, Elektro, Paranapanema(SP)는 미국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이 모든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브라질 개발은행(BNDES)의 노동자 보호기금(Fundo de Amparo ao Trabalhador)의 개입이었다.

역시 1994년 4%였던 것이, 1998년 말에는 43%로 상승했다. 이에 상파울루 대학 꼼빠라뚜(Comparato, 2001) 교수는 "1989~1998년 사이 브라질 총생산(GDP) 중 산업의 중요성은 5.3% 감소했는데, 이러한 감소는 1930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주장했다(<표 3> 참고). 그리고 미나스 제라이스州 상공 및 농축산협회(Federaminas-Federação das Associações Comerciais, Indústrais, Agropecuárias e de Serviços de Minas Gerais) 역시 동 기간 동안 브라질의 835개 기업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으며, 또한 350개의 주요 대기업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외국자본비율도 1991년 36%에서 1999년 말 53.5%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표 2> 브라질의 주요 경제지표(1986-2002)

	GDP 성장률		인플레 (%)	실질 이자율 (%)	무역수지(백만$)			경상 수지 (백만$)	외채 (억$)	국내 부채 GDP%
	전체 (%)	산업 (%)			수출	수입	무역 수지			
1986	7.6	11.3	145.3	-	22,348	14,044	8,304	-5,304	1,135	-
1987	3.5	1.0	394.6	-	26,224	15,051	11,173	-1,436	1,075	-
1988	-0.1	-2.6	993.3	-	33,789	14,605	19,184	4.175	1,026	-
1989	3.2	2.9	1863.6	19.0	34,383	18,263	16,120	1,033	993	24.1
1990	-4.3	-8.2	1585.2	-4.9	31,414	20,661	10,753	-3,782	966	18.1
1991	1.0	0.3	475.1	3.6	31,620	21,041	10,579	-1,407	930	15.9
1992	-0.5	-4.2	1149.1	34.1	35,793	20,554	15,239	6,143	1,108	21.2
1993	4.9	7.0	2489.1	7.1	38,597	25,659	12,938	-592	1,143	21.6
1994	5.9	6.7	929.3	24.4	43,545	33,105	10,440	-1,689	1,197	21.0
1995	4.2	1.9	22.0	38.9	46,506	49,858	-3,351	17,972	1,293	25.5
1996	2.8	3.7	9.1	23.9	47,747	53,346	-5,599	23,142	1,441	29.3
1997	3.7	5.5	4.3	42.0	52,994	59,837	-6,843	30,906	1,678	30.2
1998	0.1	-1.2	2.5	31.2	51,140	57,783	-6,593	33,616	2,219	40.4
1999	0.8	-1.7	8.4	22.0	48,011	49,219	-1,207	24,374	2,414	49.2
2000	4.4	5.0	6.0	15.4	55,086	55,842	-756	24,225	2,361	49.4
2001	1.4	0.3	7.7	19.0	58,200	60,400	2,600	23,200	2,100	52.6
2002	1.3	1.1	12.5	25.0	55,600	47,200	1,310	7,700	2,050	55.9

(출처: Boletim do Banco Central do Brasil,
1986~2000 오삼교(2003)재인용, 2001~2002 Banco Central do Brasil, IBGE, Fipe, FGV)

이에 브라질 좌파는 카르도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실패했으며,

이는 브라질이 그 이전 50년 동안 이룩했던 진보적 성과를 후퇴시켰다고 맹렬히 공격했다. 또한 정부는 미래수출에 대한 이익을 저당 잡히면서 외국은행으로부터 매년 200~300억 달러의 차관을 들여와 아마존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이나, 해외자본에 대한 이자나 이익을 지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IMF, 세계은행,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민간은행들은 카르도주를 "전형적인 개혁자"라 부르며.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노동자들, 농민들, 대학생들은 이에 아주 적대적이었다.

Ⅲ. PT의 변화

2002년 룰라와 PT는 이전 세 번의 대선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 변신을 시도했다.[12] 룰라는 대내적으로 과거의 강경한 좌파노선과 과격한 이미지 대신,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로의 변신을 위해 "사랑스런 룰라, 평화와 사랑(Lulinha e paz e amor)"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했고, 또한 대외적으로 경제안정과 국제협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룰라는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노동자계층의 권익을 기본적으로 대변하며, 모든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떠올랐다.

PT 역시 권력획득을 위한 변화를 추구했다.[13] PT는 군사정부 하에서 이미

12) 룰라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노동자 탄압정책을 쓰던 군사독재시절, 노조위원장에 선출되어(1975) 총파업(1978~1980)을 주도하며, 1982년에는 PT를, 1983년에는 민주노조의 정상조직인 CUT(브라질 노동자 총연맹-Central Única dos Trabalhadores)를 창설했다. 두 기관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그는, PT내의 수많은 정파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노동자 계급을 정치 세력화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상파울루의 대기업 사무직 노동자들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노조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가톨릭 세력, 농민운동, 빈민운동, 주민운동과 연계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점차 얻어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포르투 알레그리市(1989)를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참여예산제의 성공은, 유권자들로부터 행정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13) PT의 변화에 대한 논문들로는, Mainwaring(1995, 382)는 PT를 대중정당의 Duberger's model과 연결시켰고, Alcántara & Freidenberg(2001, 176)은 "PT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확언했으며, Mainwaring(1999, 172)는 "PT의 리더들이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다 득표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있다"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Mainwaring, Meneguello & Power (2000, 184-185)는 PT의 좌-우 스펙트럼에 있어서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지하에 존재하던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두 개의 공산당 정당(PCB, PC do B)과 차별화되는, 아래로부터의 참여와 다원주의를 제시하는 새로운 좌파정당으로 등장하여, 외채지불정지와 브라질 경제구조의 급진적 변혁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점차 현실 정치경제구조의 일정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온건화 되었다.

특히 세 번째 대권도전 실패이후, 룰라는 PT좌파와 일정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으로 NGO 조직인 시민연구소(Instituto Cidadania)를 통해 브라질의 여러 현실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흡수하며 구체적 정책대안을 모색했다. 이는 이미 PT내부에서 PT좌파와 온건중도파간의 경쟁에서 1995년 이후 온건파가 승리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온건화는 중산층과 일부 기업가들의 지지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PT가 집권하면 브라질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PT의 변화는 정책과 정강의 온건화뿐만 아니라 PT의 실용주의와 창조적 정책대안으로 입증되었다. PT는 브라질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며, 그 방법론으로 선거에서의 승리를 추구하는 선거 정당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참여예산제와 같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브라질 정치에 고질적인 후견주의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조직내 다양성과 통일성 견지

군사정부가 야당의 분열을 위해 정당 설립을 부분적으로 자유화한 1980년 조직된 PT의 주요 참여세력은 ① 노동자(특히 ABC 지역의 금속 노동자), ② 야당내 중도 좌파 개혁 인사, 사면된 재야인사, ③ 가톨릭교회 교회기초공동체(CEBs)에 참여한 교인과 노동자 사목회, ④ 여러 사회운동 세력(지역사회운동, 인종차별 반대운동, 여성운동, 인권운동 등) ⑤ 트로츠키파, 좌파 학생운동, MEP(프로레타리아 해방운동)와 같이 다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양한 이념과 정치 세력 분포를 보이며 상당한 이질성을 안고 출발했다. 이러한 이질적

진단했다. 1992년 Keck의 책은 PT의 형성과정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인데, Keck이후 영어권에서 PT의 성장과정을 국가 조직으로 본 연구는 없었고, 브라질에서는 Lacerda(2002)가 1990년 초반 이후 PT가 국가 조직으로서 성장한 것에 관한 분석을 내놓았을 뿐이다

요소는 결국 PT내에 여러 정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민주주의 체제유지를 가장 우선시하게 했다.[14] 참고로 이같이 "아래로부터 위까지" 모여 형성된 PT의 태생적 이질성은 브라질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정당 역사상 유일했다(Keck 1992; Meneguello 1989).
약 100년 전 '과두지배 철칙의 원칙'을 주장한 밋헬스(Michels)의 주장처럼, 권력분배에 따라 정당의 내적문제, 대표성문제, 그리고 대중정당들을 규합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15] PT내 권력분배의 문제는 정당이론에 대한 신랄한 비난과 끊임없는 토론을 촉발시켰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PT의 태생적 이질적 정치 구성 요소는, 정파들을 계속 분리(20여개 정파),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다. "아르치꿀라성(Articulação)", "사회민주파(Democracia Socialista)", "민주좌파(Esquerda Democrática)", "민주행동파(Ação democrática)", "투쟁 속의 통일파(Unidade na Luta)", "급진민주파(Democracia Radical)", "대중사회파(Unidade Popular e Socialista)", "민주행동파(Ação Democrática)", "맑스를 따르는 운동파(Movimento pela Tendência Marxista)", "아르치꿀라성 좌파(Articulação de Esquerda)", "사회주의파(Força Socialista)", "사회주의노동자파(Corrente Socialista dos Trabalhadores)", "브라질 사회주의파(Brasilsocialista)", "재시도파(Refazendo)", "사회주의 포름파(Fórum socialista)", "투쟁과 대중의 PT파(PT de luta e de massas)", "유토피아와 삶을 위한 사회주의 포름파(Fórum Socialista; Utopia e

14) PT의 태생적 이질적 요소는 결국 PT내에 여러 정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원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민주주의 체제유지를 가장 우선시하게 했다. 이렇게 브라질 사회의 "아래로부터 위까지" 모여 형성된 정당의 이질성은 브라질 정당 역사상, 그리고 아마도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유일한 것이었다(Keck 1992; Meneguello 1989)

15) 로버트 밋헬스(Robert Michels, 1876년 독일 태생으로, 로마에서 1936년 사망), 지식엘리트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독일의 사회학자이다. 막스 베버의 학생이었던 그는 ≪정당론: 현대민주주의의 과두제화 경향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1911)≫에서 사회주의정당에는 그 민주주의적 이념에도 불구하고 소수 지도자의 우위, 관료제의 대두 등 비민주주의적인 <과두제의 철칙>이 보이며 이 경향은 모든 조직집단에 불가피하다는 논지를 피력했다. 뒤에는 엘리트이론으로 기울었지만, 관료제 등 조직적 문제에 주목한 그의 시각은 오로지 경제적 문제해결만을 중시한 당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ida)", "PT운동파(Movimento PT)" 등이었다. 하지만 창당 직후부터 노조 운동과 연계된 세력이 주도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요 정파인 아르치꿀라성(Articulação)이 이데올로기보다는 노동계급의 현실적 요구 실현에 더욱 집중하며 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마침내 이들 정파들은 7개의 후보 그룹을 형성하여 지도부 경선에 나섰다.

제4차 전당대회(1986)에서, 정파 간의 "사상적, 정치적 그리고 조직적 질서 문제"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정파들의 권리를 인정했고, 제5차 전당대회(1987)에서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 법령을 제정하는 동시에, 네 정파가 경합하여 제4대 지도부를 선출했다.[16] 그리고 제5차 대회에서 "PT의 강령에 위반하는 정파는 축출될 수 있다"라는 원칙을 세워, 1990년 Causa Operária를 제명시켰고, 1992년에는 Convergência Socialista를 축출했다.[17]

1990년대 PT는,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지만, 내적 원칙과 결속을 통해 오히려 조직능력의 확대 - 90년대 말 924,000명의 당원과 브라질 5,528 도시에서 4,016 지부를 확보 - 에 성공했다. 그리고 2002년 대선후보 결정 때는, 어느 정파소속의 후보를 뽑을 것인지를 2001년 정파 간의 지도부 경선을 통해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운영모델을 보여주었다.

2. 선거를 통한 PT의 성장

비록 PT는 조심스럽게도 자신들의 정당이 좌파를 지향하는 특별한 정당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지만(Keck 1992, 246), 새로운 시민탄생과 평등한 민주주의를 위한 구조건설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회주의사상에 근거한 사회투쟁을 추구했다(Meneguello 1989). 따라서 그들은 1988년 브라질 헌법초안에 서명하

16) PT당내 트로츠키주의자 그룹 Intensa Atuação이 문제해결의 원인을 제공했다. PT당은 - 내적으로 PT 자신과 경합해야 하는 정당들을 금지하거나 혹은 표면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 존재의 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당과 자신들이 추구하는 일반정책과 병행할 수 없는 파벌의 독자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파벌들은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자신들의 정체성을 PT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규정하였다. Resoluções sobre Tendências. 5º Encontro Nacional, editora Local. dez. 1987.

17) 따라서 1994년에는 Convergência Socialista는 PSTU(Partido Socialista dos Trabalhadores Unificado)를 조직하기에 이른다.

지 않고, 그 대안으로 브라질 외채지불거부, 은행과 광물자원의 국유화,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주장했다. 직선제가 실시된 1989년 대선에 처음 참가하게 되면서, PT는 정당으로서 조금씩 온건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제6차 전당대회에서 중앙 집중적 통제성이 강한 레닌주의식 모델을 버리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동시에 추구하는 강령을 채택했고, 콜로르와 대결에서는 PT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이전의 공격 대상이던 보수정당들과 제휴하여(PDT의 레오넬 브리졸라와 연합),[18] 정치적이면서도 실용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때 룰라가 강력한 좌파정당연합 후보로서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당의 업적평가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슬로건이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19]

그런데 PT의 선거캠페인 기조는 1989년 룰라의 대선 실패 이후에도 줄곧 변치 않았다. "선거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긴 여정-수탈자나 수탈당하는 자가 없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대표할 뿐"이며(1982년 전당대회 결의안)[20],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는 현 브라질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긴장과 점차 깊어져가고 있는 계층 간의 갈등의 골 때문이다(1993년 제8차 전당대회 결의안)"[21]에 근거하여,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참여 예산제"[22]를 통해 얻은 행정경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동대회에서 당의 "급진적" 주요원칙에 대한 수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PT의 "혁명적이고도 사회적인 특징"을 재확인했고(Azevedo, 1995, p.209), PT의 주요 원칙을 수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엘리트들의 "모함"이라고 비난했다(PT 1998, 545). 그리고 "급진적인

18) 바르가스 시대 및 50년대, 노동운동이 국가에 종속된 국가조합주의 시대의 지도자
19) 룰라의 선전 참모인 리카르두 코츄에 따르면 그 슬로건은 "사회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분이었다.
20) *Folha de São Paulo*, 1998f, p.15.
21) *Folha de São Paulo,* 2001a. p.8.
22) 1989년 올리비우 두뜨라(Olivio Dutra)의 포르투 알레그리市 시장 취임과 함께 시도된 참여예산제는, 첫 2년간 재정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조세개혁의 성공과 연방정부의 지원확대로 투자액이 늘어나고 공동체운동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에 힘입어 1992년부터는 PT집권 지방정부의 표준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참여예산제는 현재 브라질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州단위에서도 역시 올리비우 두뜨라가 1998년 히우그란지두술州의 주지사가 되면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높여, PT에 대한 신뢰성 구축에 기여했다.

농업개혁과 외채지불정지"를 옹호하며(PT 1998, 556),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제도는 인간적인 삶을 위한 미래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PT 1998, 561).

1994년 룰라는, 이전의 좌파 이데올로기로 재무장하여 다시 대권에 도전했다. 하지만 선거운동기간 당시 유권자들의 민심을 파고든 카르도주의 헤알계획을 간과했다. PT는 헤알계획을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지배계급에 의한 조정이라고 정의하며(1994년 전당대회, in: Azevedo, 1995, p.212), PT의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PT 1998, 581). 따라서 당시 PT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한 것은 장기적 전략인 "반독점주의, 반대농장주의, 반제국주의"였기 때문에(Áabe 2001), 국제금융기관들의 부정적 반응을 초래했다(Azevedo 1995, 158).

1994년 대선 실패이후에서야 PT는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했다(Azevedo 1995, 210). 그 증거가 "1994년의 대선패배는 잔인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브라질 사회에 만연된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 내부투쟁에 가해지는 외부의 충격, 그리고 우리의 사상과 정치적 애매성을 반추해보게 하였다(PT 1998, 629)"라는 1995년 제10회 전당대회 결의안이다.

그러나 PT의 변화는, 끊임없는 모순과 정당 내 긴장 속에서,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PT가 1997년 전당대회에서 결의한 사회주의에 대한 정의는 "민주적 혁명"이었기 때문에(PT 1998, 653), 그들은 "좀 더 투명하고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를 민주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을 강조했다(PT 1998, 659).

따라서 1998년 룰라의 세 번째 대선 선거정책에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적 제안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Árabe 2001). 그러나 PT 스스로가 정당의 성격을 규정 짓는 데에는 여전히 애매한 측면이 있었다. 같은 해 PT 전당대회의 결의안은 "룰라의 강령(platform)이 PT의 사회주의적 프로그램과 혼돈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면서(PT 1998, 675), 원래 자신들이 주장하던 화려한 문체의 사회주의적 제안들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변화는 룰라의 세 번째 실패이후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와 카르도주 경제개혁 실패에 대한 완전한 이해 후에, 변할 수 있었다.

사실 '온건화'로의 노선변경은 2002년 룰라의 선거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

작되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2002년 6월 룰라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선두를 달리자, 외국 투기자본의 압력 속에서 자신과 PT가 변했다는 것을 브라질 국민은 물론, 월스트리트와 미국에 보이기 위해, "브라질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다(Silva 2002). 머리말은 물론 룰라의 선거 캠페인 내용으로 장식되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의도적이면서도 침착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브라질 경제와 사회 상황이, 헤알계획과 함께 도입된 카르도주 정부의 공약 불이행으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말했다. 그 편지에서 룰라는 "국가가 체결한 계약과 그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과 PT가 몇 년 전 비난했던 신자유주의 정책-가격 안정과 예산흑자 목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이거나 급진적으로 해결되는 데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2002년 대선 캠페인에서 PT가 제안하는 공식정책에는 "사회주의", "사회주의적",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단지 "공공의 이익을 급진적으로 지킬 것"만을 확언했다(PT 2002, 2). 그리고 브라질의 민주주의를 위해 "근본적으로 급진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PT 2002, 2). 그리고 세제개혁, 사회안전보장 개혁은 물론, 산업, 보건, 주택, 통신사업들도 포함한 정책을 내세웠다. PT의 역사적 특징상, 당시 PT가 보인 온건화 정도는 획기적이었다. 그 중 토지개혁을 위한 PT의 토지 몰수정책은, 단순히 법의 기준이 엄격한(Felfand 1999, 34), "1988년 헌법에 의해 행해질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고(PT 2002, 21), 동시에 정당간의 광범위한 연합정책을 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2002년 6월 우파정당이며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지지하는 PL(자유당, Partido Liberal)과 연합이다. 이때 PT는 PL로 하여금 룰라의 러닝메이트를 결정케 했는데, 부통령으로 조제 알렌까르(José Alencar)가 추대되었다.[23] 그는 대규모 섬유 기업의 소유주로서 기존의 PT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PT의 급진적 이미지를 씻어내는데 적격이었다.

한편 PT의 급진성 부각에만 열을 올렸던 브라질의 언론과 미디어 방송은, 1990년대 후반부터 PT의 온건화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는 완전히 변했다. 그 대표적 예가 헤지 글로부(Rede Globo) TV방송국 소유자이며 브라질 방송계 대부 호베르투 마리뉴(Roberto Marinho)이다.

---

23) *Veja*, 2002/06/26.

그는 “콜로르가 우리가 뽑은 마지막 우파인물이었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브라질이 이미 좌파를 선택했거나, 아니면 좌파의 임무를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국민들에게 룰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Sader 2002).
언론도 특히 상파울루州 최대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Folha de São Paulo*)는 룰라가 좀 더 “실용적”으로 변했으며(1998d, 13), “생산 모델에 대한 변화를 강조하던 PT의 주장들이 도덕성과 행정경험”으로 대체되었다고 보도했다(2001b, 4). 따라서 2002년에는 좀 더 보수적인 일간지 오 에스따두 데 상파울루(*O Estado de São Paulo*)조차 PT의 온건화를 인정하기 시작했고(2002, 6), 폴랴 데 상파울루는 PT가 제시하는 정당강령(platform)이 광범위한 측면에서 카르도주의 경제정책과 유사하다고 했다(2002c, 6). 하지만 일부 계층의 사람들은 PT가 도를 넘는 지극히 우파적인 “경제정책”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압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2002c, 8).

<표 3> 선거를 통한 PT의 성장률

국회의원				시 단위		
선거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	시장	시의원
1982	8(1.6%)	13 (1.4%)				
1986	16(3.2%)	40 (4.1%)		1988	3(0.5%)	118
1990	35(7.0%)	81 (7.9%)		1988	38(0.9%)	1,100
1994	50(9.7%)	92 (8.8%)		1992	54(11%)	1,100
1998	59(11.5%)	90 (8.6%)		1996	110(2.0%)	1,895
2002	91(17.7%)	142(13.4%)		2000	187(3.4%)	2,485

출처: PT (1999, 246-247), *Folha de São Paulo* (2002a, 15-17)

3. PT의 노선수정: 중도로의 변신 성공

브라질이 민주주의로의 이행 초기, 좌파정당 PT와 중도정당 PMDB(브라질 민주운동당)가 탄생했다. 그런데 1988년 일부 PMDB의 지도자들은 당의 보수화를 우려하며 탈당하여, PMDB보다 좀 더 좌파성향의 PSDB(브라질 사회민주당)를 창당했다. 그리고 1994년에는 카르도주를 내세우며 보수정당 PFL(자유전선당, Partido da Frente Liberal)과 연정을 이뤄 대권장악에 성공했다

(Mainwaring 1999). 그런데 콜로르 정부부터 카르도주 정부의 내각에 참여하던(2002년 4월까지) PFL은 중도로 바뀌어, 결과적으로 PSDB보다 더 좌파성향을 띠게 되었다(Power 2001).

이러한 두 정당의 노선수정은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중도좌파정당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PT를 비롯한 다른 정당들 모두가 전략적으로 중도좌파노선을 취하려 애썼다. 세하는 PSDB를 중도좌파로 복귀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PFL과의 연정을 파기하고, PMDB와의 연합을 모색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룰라는 성공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브라질 정당이 이념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24] 따라서 2002년 대선의 정당간 연합 대결은 PSDB 대 PT 구도가 되었다.

4. 브라질 사회의 변화

1988~1998년 사이 고용율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는, PT는 물론 노조를 전략적으로 온건화시켰다. 산업 및 은행노조는 같은 기간 60만 명의 회원을 잃고 (Cardoso 2001, 23), 실용주의적 전략을 채택하여, 더 높은 급여나 상여금보다는 일자리 유지에 더 치중했다(Araújo, Carneiro, Cartoni, & Mello Justo, 2001; Santana, 1999). 즉 이전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활동보다, "실용적 방어정책"을 정책화시키기 시작했다(Rodrigues 1999, 90).

그러나 공공서비스 분야의 노조는 오히려 회원이 늘어 확대되었다. 교원노조는 40만 명,[25] 보건의료 노조는 20만 명, 그리고 공무원 노조는 10만 명, 그리고 기타 분야의 노조는 30만 명의 새로운 회원을 확보하여, CUT에서 가장 큰 노조를 형성했다.[26] 그런데 서비스업에서의 노조의 등장은 CUT를 변하게 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노조가 사기업 노조보다 비타협적인 것은, 그들이 경쟁

24) 우파 정당으로는 PMDB, PSDB, PFL, PDT 등이 있는데, 각 당내에서도 중도파가 섞여있어 가장 보수우파인 PFL을 제외하고는 일괄적으로 당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5) 1988년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교사와 공부원은 노조를 조직할 수 없었음.

26) 그것들은 6개의 교조, 4개의 사회보장제도 시스템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의 조합, 2개의 은행노조, 그리고 1개의 블루 컬러 노동자조합인 금속노조였다 (Silva 2001, 144).

이나 실업에 덜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카르도주가 연금개혁을 제안했을 때, 공기업 노조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CUT 중 규모와 영향력이 가장 큰) 상파울루 공립교사 노조는 정부와의 협상을 선호했다. 따라서 분열되기도 했지만(Silva 2001, 144), CUT는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과 협상할 수 있다는 실용적 태도를 취했다.[27] 왜냐하면 CUT의 입장에서는, 노조의 전통적 기반의 쇠퇴와 공기업 노조의 등장으로. 좀 더 폭넓은 브라질 사회·경제적 기반을 포함하는 복합성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CUT의 정치적 의견이 좀 더 크고 다양해졌지만, 정치적 학습이 축적됨에 따라 '온건화'냐 혹은 "급진주의"냐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Nogueira 1999, 65). 하지만 그들은 실용주의를 택했다. 그런데 이러한 CUT의 변화가 PT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은 않았다. 왜냐하면 PT의 노조 지지기반이 살아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PT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선거 전략상 실용적 접근을 수용해야 할지, 아니면 조직화된 노동의 지지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노조전략을 다양화시키며, PT의 환경 또한 변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28]

신노조주의의 변화와 함께, 브라질의 "신사회운동"도 변했다. 1970~1980년대 등장한 사회운동 역시 PT의 세력 확장에 일조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사회운동 역시 PT처럼 노동자들과 긴장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90년대 민주적 시민권의 확대는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로비나 협약, 혹은 정책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자치권을 얻어내는 경향을 보였다. 즉 신시민운동의 주체들은 "로비"와 "제도화된 특정 주제 네트워크(Alvarez 1997, 104)"를 통해 공식기관과 인연을 맺으며, "대의 민주주의의 공식절차를 존중하며 적극적 비판을 통해 국가와 관계를 맺는 것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권력획득을 위한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Alvarez 1997, 102). 이것은

27) 2002년 12월, CUT의 대표는 그동안 CUT가 지켜온 역사적 입지를 뒤집어 놓는 발언을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은퇴자들에 대한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에 찬성하며, 월급을 인플레에 따라 재지수화(reindexation)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Primeira Leitura 2002, 710).

28) 노조의 변화가 어떻게 PT 선거의 근본원리와 대의원들의 특성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는 Rodrigues(2002)를 참고할 것.

사회운동의 담론과 행위가 시민사회 영역을 훨씬 뛰어 넘는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와 국가가 서로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많은 사회운동은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명분"을 만들어낸 반면, 시민운동은 좀 더 실용적이며, 또한 제도적 접근-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에 더욱 집중했다. 그런데 시민운동 세력이 확대되면서, 사회운동은 PT와의 협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PT는 이들과의 아무런 마찰 없이, 선거 전략상 실용노선을 수용하며 "중도로의 이동"에 성공했다. 즉, 브라질의 경제와 정치의 발달은, PT의 기반을 이루는 노조구성원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사회운동의 지속적 확대는 PT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수많은 정파를 갖은 당내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5. 참여예산제(Orçamento Participativo)

1989년 포르투 알레그리市와 같은 일부 도시에서 처음 도입된 참여예산제는 PT의 정치적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주로 정부의 주민복지 부문에서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참여 메커니즘으로, 부족한 재원의 효과적 사용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동원하여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고 투명하고도 효율적인 행정을 지향함으로써, 엘리트간의 밀실거래나 복지예산을 정치적 지지와 맞바꾸는 후견주의적 정치 행태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중에 PT 출신의 시장이 재선되면서 PT는 행정능력뿐만 아니라 급진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실용주의 정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2002년 선거 당시 PT는 이미 제도정치권에서 안정적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 룰라와 PT에 대한 우파의 불안감 조성은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참여예산제는 1989~2000년 사이 기본 위생시설을 갖춘 가구의 수를 53%에서 85%로 증가시켰고, 유아 사망율을 40% 감소시켰다. 북부의 벨렝에서는 1997~2000년 사이, 두 달에 한 학교를 건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오삼교, 2003).

6. 재계(산업 부문)의 지지

세 번의 대선 실패이후, 룰라와 PT 지도부는 기업가들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룰라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2년 7월까지 약 100여명의 대기업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룰라를 지지하던 것이 9월말에는 500여명으로 증가하였다.[29] 이중에는 에우제니우 스타브(Eugênio Staub)이나 이보 호제트(Ivo Rosset) 같은 대기업가들과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 부회장인 호베르투 제아(Roberto Jeha)도 있었다.[30] 이들은 카르도주 정부의 정책이 금융부문에 치우쳐 산업부문이 홀대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데 약 150여명의 중소기업가들도 CIVES(시민을 위한 브라질 기업가 연합)을 조직하여 전국의 기업가들을 상대로 수출과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약속한 룰라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31]

PT는 상파울루주식거래소(Bovespa)와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에 대해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약속하는 문서에 서명하며, 기업인과 금융계를 안심시켰다.[32] 이는 PT지도부의 경제 인식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대다수의 PT 활동가들은 주식시장을 카지노와 같은 투기꾼들이 모이는 장소로 인식했다. 그 좋은 예가 1994년 룰라의 러닝메이트였으며, 2002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메르카덴치(Mercadente)인데, 그 조차도 외국자본을 모텔 달러(dolar de motel), 즉 브라질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다음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으로 인식했다. 하지만 PT가 주식시장의 생산적 기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주류의 경제적 인식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

29) *Veja,* 2002/10/02.

30) Fiesp 부회장인 호베르토 제아는 까르도주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룰라를 지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우리는 투기꾼들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룰라는 브라질을 회생시켜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 유제니오 스타우는 PT가 기업가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하고 있다. (*Veja,* 2002. 10. 2).

31) CIVES는 룰라가 당선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기업가에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익을 분배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율할 수 있지만 까르도소 정부의 정책 하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CIVES 대표단과의 인터뷰 (2002. 9. 20. 상파울로) Cives는 팜플렛에서 자신의 활동목표로 기업가의 정치 참여 촉진, 진보정당 특히 PT와 기업가 계급과의 연결, 국가와 사회간의 투명하고 참여적이며 민주적 관계 확립, 노자관계에서의 새로운 규범의 건설과 촉진을 들고 있었다.

32) *Veja*, 2002/10/23.

PT는 또한 과감한 복지확대를 주장하던 입장에서 벗어나,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흑자를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는 브라질 정부와 IMF와의 합의 사항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룰라 정부가 지켜야 되는 조항이기는 하지만 과거 IMF를 제국주의의 하수인 정도로 인식했던데 비하면 인식의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오삼교 2003).

<표 4> 부문별 브라질 평균 경제성장률

	총GDP	산업GDP	서비스GDP	농업GDP
1950-59	7.1	9.2	7.1	4.1
1960-69	6.1	6.8	5.7	4.3
1970-79	8.8	9.2	8.2	4.3
1980-89	2.9	1.4	3.7	3.8
1990-99	1.8	0.8	2.0	2.3

(출처: CUT,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y of Brazilian Workers* Aug. 2000, 4, 오삼교(2003)재인용)

Ⅳ. 카르도주 정부에 대한 심판과 우파의 무능

브라질 국민들은 카르도주를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하였지만, 그의 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그들은 그가 임기 중 재정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브라질에 만연된 사회문제를 미처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선거 바로 직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카르도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첫 임기를 마치고, 긍정적 평가 43%, 부정적 평가 17%를 받았지만,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는, 긍정적 평가 (거의 1/2 수준) 23%, 부정적 평가 (2배 수준) 32%를 받았다(Rubens & Coutinho 2003).

<표 5> 역대 대통령 평가 (1990~2002년)

대통령 (여론조사실시기간)	평가		
	아주 좋음/좋음	보통	나쁨/아주 나쁨
사르네이 (90년 3월)	9%	34%	56%
콜로르 (92년 9월)	9%	21%	68%
프랑쿠 (94년 12월)	41%	48%	8%
카르도주 (98년 9월)	43%	37%	17%
카르도주 (02년 10월)	23%	42%	32%

출처: Instituto Datafolha

1. 여당 후보 세하에 대한 평가

카르도주 정부에서 경제계획부 장관과 보건부 장관을 역임했던 여당 후보 세하는 선거 초반 유권자들에게 정직하고도 능력 있는, 아주 뛰어난 행정가라는 이미지를 주며 선전했다. 하지만 그는 능력에 비해 대중을 휘어잡는 매력이라든지 혹은 카리스마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방송의 전폭적 지지로, 룰라만 저지하면 정치적 기적을 이룰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TV 토론에서 그가 고용창출과 치안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자, 상대 경쟁후보들은 "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당신이 왜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하지 못했는가?"라며 반격했다. 이때부터 그는 카르도주 정부와 거리두기를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권자들은 그를 점차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카르도주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의 수를 고려하면, 세하는 약 25%의 잠재 지지 세력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여당후보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신뢰부족은 유권자 대다수로 하여금, 그의 선거 전략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가 카르도주 정부의 지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2. 호제아나 사르네이의 등장과 지지율 변화

여권의 후보로 2001년 12월과 2002년 2월 사이, 전직 대통령 사르네이의 딸

이자, 전직 마라냥(Marahão)州 주지사였던 호제아나 사르네이(Roseana Sarney)가 등장했다. TV에서 당(PFL)의 강한 이미지로 그녀는 2월 20~21일 사이 Datafolha가 행한 설문조사에서 룰라와 3%차이를 보이는 2위를 차지했다. 동 설문조사의 결선투표 시뮬레이션에서 그녀는 룰라를 51:39%로 이길 것이라는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선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그녀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3월 1일, 연방경찰이 그녀 소유의 루누스(Lunus) 기업 계열사무실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뭉칫돈(13억 헤알, 약 558,000 달러)을 압수하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되자 유권자들은 그녀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 그녀는 45일 만에 자신의 지지도가 24%에서 13%로 떨어지자, 4월 중순 사임했다.

가로치뉴는, 2002년 1월~6월 초 사이(지지율은 2월 14%, 3월 15%로, 호제아나의 이름이 후보 명단에 들지 않은 경우 18%까지 지지를 받은 바 있음)와 선거 캠페인이 거의 끝날 때(9월 20일 이후) 고메스를 앞선 바 있다. 그가 가장 높은 지지(17%)를 받은 것은 마지막 설문조사(10월 4~5일 실시)에서 였다. 제1차선거 결과 유권자의 42%가 룰라를, 21%가 세하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중 어떤 기간(2001년 12월~2002년 4월, 2002년 6월~2002년 8월 중순 사이)에는 제3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 총합계가 룰라의 지지율을 초월한 적도 있었다. 호제아나의 탈락과 고메스의 추락 이후, 가로치뉴의 지지율 상승은 계속되어, 선거 막바지에 세하를 거의 따라잡은 27%나 얻었다.

3. 정치적 부패로 얼룩진 민영화

브라질 집권 세력의 부패가 정권교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2002년 10월 선거 직전 TGI Brasil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부패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다. 이 설문조사는 주로 브라질 남부 및 남동부州들과 9개 주요 도시[33]에서 12~64세에 이르는 5,31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이란 질문에, 응답자의 82%는 "부정부패를 단호히 근절시켜야 한다", 12%는 "그것에 동

33) Belo Horizonte, Brasilia, Curitiba, Fortaleza, Porto Alegre, Recife, Rio de Janeiro, Salvador, São Paulo

의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용" 및 "교육" 그리고 "치안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대답했다.[34]

2002년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가 조사한 브라질 부패지수는 91개 국가 중 46번째로 중간정도로, 고위공무원부터 하위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으로 그리고 아주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 카르도주의 두 번의 임기 내내 그리고 재정부문에서 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의 부정한 거래는 계속되었다.

브라질 전략적 국영기업체들의 민영화 과정은 부패의 온상이었지만, 이에 관여 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예를 남겼다. 그리고 은행의 민영화의 경우도, 중앙은행(Banco Central)은 물론 그 밖의 공공 은행의 은행장들이 민영화를 통해 기업을 사려는 기업가들과 서로 뒤얽혀 사적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집권 정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는 상당히 컸다.[35]

---

34) 재미있는 현상은 브라질의 상류층일수록 부정부패 현상이 꼭 척결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콜로르의 탄핵을 촉발시킨 콜로르의 형 페드루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은 뇌물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 소유의 기업이 파산직전이라고 Vej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35) 브라질 최대 철광회사 CVRD의 민영화 과정은 아직도 조사 중이다. 광물에는 전혀 경험이 없던, 망해가는 섬유재벌 비꾸냐(Vicunha) 그룹의 총수 벤자민 스테인브룩(Benjamin Steinbruch)은 카르도주 대통령의 아들 파울루 카르두주(Paulo Cardoso)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단돈 33억 헤알에 CVRD를 사들였다. Vicunha 그룹 주도로 형성된 컨소시엄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정부내각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그 컨소시엄을 처음 구성한 사람은, (세하와 카르도주의 선거 자금 담당자인) 히까르두 쎄르지우 데 올리베이라(Ricardo Sérgio de Oliveira) 장관이었다. 그는 정부가 선택한 그룹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CVRD를 구매할 수 있도록 PREVI와 같은 연기금을 빌려주고, CVRD의 경매를 담당했던 브라데스코(Bradesco) 은행이 법을 어기고 CVRD주식의 10% 지분을 사들였을 때 모른 척했다.

나중에 벤자민 스타인브룩은 CVRD의 경영권을 잃을 위험에 처하자, 이에 개입한 두 명의 장관을 고발했다. 그는 올리베이라 장관이 컨소시엄 구성이후 5,000만 헤알을 뇌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카르도주 대통령은 침묵하며, 그를 브라질은행 대외무역관장(Diretor da Carteira de Comércio Exterior do Banco do Brasil)에 임명했다.

브라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민영화 사업"이라고 떠들던 텔레브라스(Telebrás)의 경우, 안드레 헤젠데(André Lara Resende) BNDES 은행장, 멘돈사 바후스(Mendonça de Barros) 통신부장관 그리고 카르도주 대통령이 관여했다. 세 사람은 BNDES 은행장실이 모여,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니엘 단타스(Daniel Dantas)와 페르시우 아리다(Pérsio Arida)가 소유한, 기회그룹(Group Opportunity)이 주도하

Ⅴ. 브라질 정치적 특성과 2002년 대선 결과

1. 브라질 선거제도와 다당제

브라질 대선제도는 1988년 헌법에 의해, 제1차 투표와 결선투표로 이루어진다. 제1차 투표에서 어떤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면, 패배한 정당들은 연합을 형성하여 1·2위 후보 중 한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에 참가한다. 하지만 이미 제1차 투표 때 결선투표에서 나타날 정당간의 연합이 그 윤곽을 드러낸다. <표 6>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선에 나서는 후보의 수가 감소하면 할수록(1989년 5.7, 1994년 2.7, 1998년 2.5, 2002년 3.2), 정당간의 연합은 더욱 강해지는 성향을 보였다.

<표 6> 대선후보 실효지수

	1989	1994	1998	2002
후보수	21	8	12	6
5% 이상 지지 받은 후보수	5	3	3	4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수	5.7	2.7	2.5	3.2
당의 연합을 통해 당선시킨 비율	4%	36%	58%	25%

(출처: dados brutos: www.iuperj.br/deb)

는 컨소시엄이 Telemar (Telebrás의 자회사로, 브라질 북동부 및 북부 전체는 물론, 남동부 – Rio de Janeiro, Minas e Espírito Santo – 의 유선전화 시장 장악)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협의했는데, 이 사실은 나중에 BNDES 은행장실에 설치된 전화 도청장치에 의해 폭로되었겼다. 올리베이라 장관은 자신에 대한 변명을 다음과 같이 했다. 자신은 애초에 다른 컨소시엄을 지지했지만, 헤젠데 은행장과 바후스 통신부 장관의 압력 때문에, 기회 그룹이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막후에서 지휘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Telemar 경매 직전 헤젠데 은행장과 바후스 통신부 장관은 "무책임하게도" La Fonte, Inepar, Andrade Gutierrez 그룹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유일하게 홀로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경매를 조작하여, 최저가격에 낙찰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당시 대통령의 아들 파울로 카르도주가 Inepar 그룹을 위해 일한 대가로, 리우 데 자네이루 부촌의 호화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소를 당한 사람은 올리베이라 장관 한 사람뿐이었다. 그는 Telemar와 Telemar를 낙착받은 컨소시엄 양쪽으로부터 기소당했다. Telemar는 그가 Telemar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조작에 관여한 업체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Telemar를 낙찰받은 컨소시엄은 그가 뇌물로 미화 9,0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기소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당의 연합을 통해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일까?[36] 첫 번째 이유는 브라질 정당이 **탈중심적(descentralizada)**이라는 점이다. 선거를 통해 뽑는 7개의 자리 중 4자리(하원의원, 주의원, 주지사, 상원의원)가 州를 단위로 하는 지역기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브라질 정치시스템에 있어서 선거정책은 자연스럽게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州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기반인 州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라도 브라질 전역에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당들은 자신들의 지역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결선을 포기하는 대신, 지역구에 더 많은 노력을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높은 선거비용이다.[37]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 경쟁자의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선거 캠페인 비용 상승을 뜻한다. 선거 캠페인을 위한 재정지원은 거의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있는 최소한의 후보들만이 최소한의 경비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실시된 네 번의 대선결과, 제1차 투표에서 1위를 한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무난히 당선을 확정짓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브라질 대선의 특징은 대선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선거 매커니즘이나 심리적인 요인-외에도, 대선 경쟁에 참가하는 후보의 수와 외부적인 요인-당의 성격, 연방주의, 캠페인 비용-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브라질 정치체계의 또 하나의 특성은 다당제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실시된 다섯 번의 하원의원 선거 결과는 다당제로 인한 정당의 파편화 정도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즉 선거에 참가하여 하원의원을 배출한 정당의 수는 <표 7>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 18~19개나 되지만 그 중 5% 이상의 득표를 얻은 당은 7~8개에 불과했다. 그리고 90년대 브라질 하원의원을 배출한 유효 정당수의 평균은 8.0인데, 이는 파파뉴기니아 10.8 과 벨기에 8.5 를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높다(Nicolau 2003, 12).

---

36) 브라질 진보당(PPB-Partido Progressista Brasileiro)과 자유전선당(PFL-Partido da Frente Liberal)은 2002년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후보도 지지하지 않았다.

37) PT 역사상 가장 많은 경비를 쓴 선거였음. Rubio, Delia Ferreira(2005), "Financiamento de Partidos e Campanhas: fundos Públicos versus fundos privados" in *Novos Estudos-CEBRAP,* S.P., No.73, 2005/11 참고할 것.

<표 7> 하원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의 파편화 (1986~2002)

	1986	1990	1994	1998	2002
선거에 참가한 당의 수	29	33	23	30	30
하원에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의 수	12	19	18	18	19
하원의원 5%이상 배출한 당의 수	6	8	8	7	7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당의 수(Ne)	3.6	9.8	8.5	8.1	9.3
하원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당의 수(Np)	2.8	8.7	8.2	7.1	8.5

(출처: www.iuperj.br/deb)

2. 후견주의와 철새정치

80년대 초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여러 군소정당은, 민주화이후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직접 참여보다 오히려 다른 당과의 연합을 통해 선거에 임하는 전략을 썼다. 왜냐하면 브라질과 같은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에서 26개 주와 1개의 자치구(수도)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州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방권력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은, 다른 정당과의 연합으로, 브라질 전통적 정치스타일인 후견주의를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후견주의는 정치엘리트가 지역구의 특정부문이나 지역주민에 예산배정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선거에서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방정부차원에서도 정부가 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나 주요 지역 주지사들과 연방정부 예산을 미끼로 정치적 거래를 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재생산되어 왔다.

민주화 이후 의원들의 소속정당 바꾸기, 즉 소위 철새정치는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브라질 선거제도가 현직 의원의 입후보를 보장하며 각 州가 하나의 선거구로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데서 유래한다. 한 정당에서 수십 명이 입후보하며 이 경우 정당의 통제력이 거의 없어 각 후보들이 각개약진 형식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 정당의 소속의원 장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당선가능성이 큰 정당을 골라 자유로이 입후보하며, 당선이후에는 영향력과 정부예산 접근성이 높은 정당을 찾아 수시로 당적을 바꾼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약화는 다당제 하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에서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로 하여금 법안통과를 위해 각 정당 및 정치인과의 내부 거래를 불가피하게 한다. 실제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 소속정당이 의회내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거의 없어, 후견정치는 아직도 브라질 정치의 주요특징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밀실정치는 정치적 부패를 야기하고 있다.

<표 8> 브라질 정당간의 연합과 득표율 추이
(1994-2002년 사이 하원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정당	1994년 득표율 (의석수)	1998년 득표율 (의석수)	2002년 득표율 (의석수)	이데올로기에 따른 득표율 변화추이 (1994~2002)
우파 PFL, PPR(PDS+PDC), PPB(PPR+PP), PTB, PRN, PL, PSC, PDS, PRONA	37.3%(192)	41.8%(214)	38.5%(196)	+ 2.1%
중도 PMDB, PSDB, PP(PTR+PST), PST	40.0%(205)	35.7%(183)	28.8%(148)	- 27.8%*
좌파 PDT, PT, PSB, PDdoB, PPS/PCB, PPMN, PV	22.5%(115)	22.5%(115)	32.5%(167)	+ 42.5%**
기타 PRP, PSDC	0.2%(1)	0.0%(0)	0.2%(1)	0.0%
총합계	100.0%(513)	100.0%(512)	100.0%(512)	- 0.2%

출처: TSE근거로 계산 (Neres 2005, 71)
* PMDB는 -30.8% 하락한 반면, PSDB는 +14.5% 상승.
** PDT가 -38.2% 하락한 반면, PT는 +85,7% 상승.

3. 2002년 대선은 과연 이데올로기에 의한 선거였는가?

정치학자이며 룰라의 보좌관을 지낸 신저(Singer 2000)는 1989년과 1994년 대선이 이데올로기에 의한 선거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2002년 대선도 이데올로기에 의한 선거였을까? 네 번의 대선을 치루면서 브라질 유권자들의 좌-우 개념은 어느 정도 발전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2002년 5월 상파울루

대학 정치학과의 킨조(Kinzo)교수의 설문조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상팡울루州 연구기관(FAPESP)[38]의 재정지원으로 상파울루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치적 대표성: 브라질 선거구도에 있어서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신 자신은 좌-우 어디에 속하는가?"를 물었다.

<표 9> 대도시 상파울루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정체성과 투표

후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 (유권자 자신이 말하는 좌파-우파 위치)				총계
	좌파	중도	우파	NS/NR	
룰라	59	37	34	33	38%
시로	5	12	10	7	9%
가로치뉴	13	17	16	18	16%
세하	9	18	27	14	18%
에네이아	6	5	4	3	4%
무효/무답	8	12	9	25	14%
총계(사람수)	174	492	450	384	1,500(명)
총계(%)	12%	33%	30%	26%	100%

(출처: Maria D'Alva Gil Kinzo, 2002)

분석결과 2002년 대선은 이데올로기 선거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로는 첫째, 유권자들의 투표변수와 "이데올로기적 정당일체감(identificação ideológica)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과, 둘째, 이데올로기 스펙트럼 중 가장 우파인 국가질서재건당(PRONA)[39]의 에네이아(Enéia) 후보에 대한 높은 지지율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대선은 이데올로기 선거가 아니라, 룰라 개인에 대한 지지였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룰라의 대중적 카리스마와 대화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리더십, 그리고 선거전략(도전적인 노조 지도자 이미지에서 세련된 국제신사 이미지로의 변신) 등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인상을 주는데 주효했기 때문이다(*Veja*, 2002/10/29).

38) Fundação de Ampara à Pesquisa do Estado de São Paulo
39) Partido da Reconstrução da Ordem Nacional

4. 무료 선거홍보 프로그램(HPEG)과 여론조사

2002년 대선은 미디어와 여론조사의 선거였다고 정의될 정도로, 각 정당과 후보들은 무료 선거홍보 프로그램(HPEG)를 통해 자신과 정책노선을 널리 알리는 데 열중했다. 따라서 주요 여론기관들은 TV 토론이 끝날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영향력을 끼쳤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을 지켜본 이후 자신들이 지지할 후보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의 주요 여론기관들은 2002년 1월~10월까지 약 70 여 차례의 여론조사(Ibope 23, Datafolha 15, Instituto Sensus 12, Vox Populi 20)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명한 기자나 사회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광고전문가, 정치가, 심지어 심리학자들의 의견이나 분석과 함께 발표했다. TV 방송국들은 각 정당과 후보를 위한 무료 선거홍보 프로그램(HPEG)에서 주요 후보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2002년 4월까지, 룰라(PT), 세하(PSDB), 가로치뉴(PSB), 고메스(PPS) 네 후보들은 SBT방송국의 “좋은 일요일(Domingo Legal)”이란 오락 프로그램에 20번 이상 출연했고, 5월~10월 사이 시사프로그램에 70번 이상 출연했다(Mattos, 2002). 이를 통해 과거 보수적 언론에 의해 대중에의 접근에 애로를 겪었던 룰라는 비교적 자유롭게 대중에 접근할 수 있었다. 룰라는 이전의 투쟁적이고 전투적 태도를 버리고 정치 홍보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진 친근하고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5. 유권자들에 대한 분석

2002년 선거는 유권자수가 9천만 명이상으로 브라질 역사상 최대 선거였다. 만 16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본 선거에서 유권자수는 1998년 비해 8,6%(남성 6.4%, 여성 11%) 증가했다. 제1차 선거 결과는 유권자의 성별, 연령, 사회 경제적 신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룰라는 제1차 선거는 물론 결선투표에서 (TV토론과 여론조사결과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과 노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제1투표에서 룰라에 대한 지지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지비율이 높아졌다(초등학교 졸업자 42%, 대학 졸업자 52% 지지). 고메스(각각 9%, 15%)

는, 룰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지만, 가로치뉴(각각 10%, 9%)는 반대 경향을 보였다. 결선투표에서 룰라는 중등 학력의 유권자 지지에서 34%의 차이로 세하를 눌렀다. 이는 10월 4~5일에 행한 설문조사 평균 26%를 훨씬 앞선 것이었다. 그 밖의 학력에 따라 나타난 결정적 결과는 없었지만, 수입 격차에 따른 지지율은 학력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종교 관련 자료는 없었음).

도심지역 중에서도 룰라는 제1차 선거 때, 지방의 중소도시 (42%)보다는 대도시에서 (47%)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가로치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러한 성향(중소도시 12%, 대도시 20%)은 룰라보다 컸던 반면, 세하의 경우는 정반대(중소도시 26%, 대도시 14%)였다.

결선투표 결과 룰라의 지지율은 대도시일수록 상승했고, 세하의 지지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두 후보 사이의 지지율 간극은 더욱 벌어졌다 (유권자의 수가 1만 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11%였던 것이 15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36%로 벌어졌다). 이것은 대도시에서 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이 야당에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후보를 지지하는 변수는, 고메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거지역인 북동부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것은 과거의 특징인 "지역 간의 표차"와는 거리가 있다. 즉 브라질이 한창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시기(1945~1964)에는 지역에 따라 선거결과가 "<남부+남동부>:<북부+북동부+중부+중서부>"로 나뉘어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개발 지역>:<비개발 지역>"으로 나뉜 것이다 (Soares 1973). 하지만 2002년 대선은 과거와는 달리 낙후된 지역에서의 정치적 색채는 훨씬 희석되어, 생태학적 자연 변수, 인구학적 변수, 사회·경제적 변수가 그리 크게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Ⅵ. 맺음말

지금까지 2002년 브라질 대선에서 좌파정당 PT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국제적 요인과 브라질의 국내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국제적 요인으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라는 기존 좌파정권의 탄생에 대한 이론들에 입각한 카르도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실패, 선거정당을 지향한 PT의 변화, 기존 정치

엘리트 특히 보수적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심판을 살펴보고, 국내적 요인으로는 브라질 특유의 정치적 특성과 선거제도, 미디어와 설문조사의 선거로 정의된 선과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첫 번째 원인이었던 카르도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실패는 분명 유권자들에게 PT를 선택할 동기를 부여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단순히 시장의 논리를 앞세우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분배를 앞세우는 좌파정당을 지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때문이다. 그 좋은 예가 1999년의 경제위기이다. 따라서 브라질 유권자들의 PT의 선택은, 신자유주의에 의한 시장의 불균형과 분배 악화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능과 역할 회복에 대한 열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한계와 문제만으로는 유권자들이 왜 새로운 보수 세력이 아닌 PT를 선택했는지 설명이 되질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는 좌파의 변화-온건화, 실용주의화, 그리고 선거 승리를 위한 제휴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곁들어져야 하는데, 좌파가 변신할 수 있었던 직접적 원인은, 오랜 권위주의 통치와 1989년 동구권의 붕괴를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의의를 재평가하게 한 계기를 제공했고, 후자는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이상 대신 시장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PT의 지속적인 신자유주의 비판은, 유권자들에게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며, 정권을 맡길만한 좌파정당으로 인식된 데 한몫 했다. 그리고 PT가 다른 정당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참여예산제 등의 실시로 부각된 정책 개발능력이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네 번째 대권 도전에서야 수용한 "광범위한 선거득표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PT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아닌 참여와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실사구시적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여, 브라질 정치사회의 특성에 맞춘 다른 당과의 제휴전략을 통해, 보다 폭넓은 유권자층을 포용하려 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강하게 주장해왔던 정책내용-외채지불정지나 대농장에 대한 급진적 토지개혁, 민영화 반대-에 대한 유연하고도 타협적인 태도는, 중도파 성향의 유권자를 흡수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2002년 여름의 행보-은행 및 기업가들에 접근하여 신중한 경제정책

노선을 강조-는 PT의 집권이 정치 경제적 불안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약화시켜, 신자유주의하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던 일부 기업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PT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원인은, 브라질의 경제와 정치 발달로 인한, PT의 구성원들의 실용적이며 제도적 접근 추구이다. 특히 PT의 지지기반인 CUT와 사회운동들의 실용적이며 제도적 접근 주장은 PT로 하여금 중도로 이동하게 했고, 또한 사회운동의 지속적 확대는 PT로 하여금 전략적으로 수많은 정파를 갖은 당내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결론적으로 PT의 집권은 PT 스스로 전통좌파 정당의 경직된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대안을 가진 책임있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파 내지 중도우파 정당들에 포진한 브라질 지배엘리트의 정치적 부패와 다당제로 인한 우파의 정치적 헤게모니의 약화 현상이다. 게다가 정당정치가 취약한 브라질 정치에서 룰라 개인의 이미지와 인기가 PT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참고문헌

신원철(1997), “브라질 노동자당의 역사”, *Labour Society Bulletin*, No.14.

조돈문(2003a), “브라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 워싱턴 컨센서스의 파산과 ‘정당성 전이’ 효과”, in 조돈문 「라틴아메리카연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지. 제16권 제2호 (2003a. 12), pp.93-124.

_____(2003b), “브라질 까르도주 정권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 삶의 조건의 변화”, in: 조돈문 「연대와실천」, 영남노동운동연구소, 통권 제113호 (2003. 11), pp.54-70.

오삼교(2003) “브라질의 새로운 좌파정치” 「현상과 인식」, 27권 1/2호, pp 118-142.

_____(2004)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지방정부 집권경험: 지향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in: 「라틴아메리카연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제17권 제3호. pp.33-67.

_____(2007), "우루과이 좌파 정당 집권 배경: 신자유주의의 취약성과 좌파의 변화를 중심으로", in: 「국제지역연구」, 한국 외국어 대학교,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제11권 제2호, pp.237-273.

Abers, Rebecca(2001), *Inventing Local democracy: Grassroots politics in Brazil,* Boulder, CO: Lynne Rienner.

Alcántara & Freidenberg(2003), *Partidos Politicos de America Latina,* FCE, Instituto Federal Electoral.

Alvarez, Sonia(1997), Reweaving the faric of collective action: Social movements and challenges to "actually existing democracy" in Brazil, in: Richard Fox & Orin Starn(Eds), *Between resistance and revolution: Cultural politics and social protest* (pp.83-117),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Arabe, Carlos Henrique Goulart(2001), A evolução programática do PT, in: www://cevep.ufmg.br/bacp/

Azevedo, Clóvis Bueno de(1995), *A estrela partida ao meio: Ambiguiddes do pensamento Petista*, São Paulo, Brasil: Editora Entrelinhas.

Bernardi, Iara, "Os 70 anos do voto feminino", 2002/08/03.

Cardoso, Adalberto Moreira(2001), A filiação sindical no Brasil, *Dados,* Vol.4 No.1. pp.15-52.

Carlsen Laura(2004), "Latin America Shift to the Center-Left", in: SL - IRC Americas Program http://www.americaspolicy.org/columns … - mona.uwi.edu, http://www.commondreams.org/views04/1204-09.htm

Carreirão(2002), Yan de Souza, *Decisão de voto nas eleições presidenciais brasileiras*, Edit. DA UFSC, FGV.

_____(2004), "A eleição presidencial de 2002: uma análise preliminar do processo e dos resultados eleitorais", in *Revista Sociologia e Política*, Curitiba, Vol.22, p.179-194

Cavalcanti(2005), Luís Otávio, *Como a corrupção abalou o governo Lula: Por que o presidente perdeu a razão e o poder?*, São Paulo, Edit. Ediouro.

Comparato, Fábio Konder(2001), "A desnacionalização da economia

brasileira e suas consequências políticas", Portal do Instituto dos Advogados do Brasil. 2001/11/22.

CUT, *The Economic and Social Reality of Brazilian Workers*, Aug. 2000. p.4

Demier, Felipe(Coord., 2003), *As transformações do PT e os rumos da esquerda no Brasil*, Edit. Bom Texto.

DULCI, Luiz(2002), Mudança desde o início (Entrevista à Ricardo de Azevedo), *Teoria e Debate*, São Paulo, Vol.52. No.4, dez de 2002-fev. de 2003.

Feland, Steven(1999),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policy in Brazil: Decision making and influence from 1964 to 1992,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34. No.2, pp.3-42.

Fernandes, Florestan(1991), *O PT em Movimento*, Edit. Cortez.

Fernandes, Hilton Cesario(2005), *Voto e Gênero: O comportamento eleitoral feminino na sucessão presidencial de 2002*, USP-FFLCH(석사논문).

Ferreira, Marcelo Costa Ferreira(2000), "Participação e comportamento político no Estado de São Paulo, 1990", in: *Opinião Pública*, Vol.6, No.2, Campinas.

Filgueiras, Luiz, "Neoliberalismo e Crise na Américca Latina: o caso do Brasil", in: Fortes, Alexandre (Org., 2005), *História e perspectivas da esquerda*, Edit. Argos.

Folha de São Paulo, 1994/05/2, 1996/03/26, 1997a/06/30, 1997b/07/27, 1997c/07/28, 1997d/08/25, 1997e/09/01, 1997f/11/18, 1998a,/05/26, 1998b/05/27, 1998c/06/03, 1998a/05/26, 1998b/05/27, 1998c/06/03, 1998d/07/19, 1998e/10/07, 1998f/11/08, 1999/10/03, 2001a/05/29, 2001b/09/16, 2001c/09/17, 2001d/09/28, 2002a/03/16, 2002b/03/17, 2002c/06/15

Fundação Konrad Adenauer(2003), *Eleições e Partidos*, Cadernos Adenauer IV, No.1

Galietti, Mauro(2003), Ambivalências de uma Militância, Revista Ampliada.

Guarniere, Fernando(2004), *Partidos, seleção de candidatos e*

comportamento político, USP-FFLCH 석사논문.

Guerra Alexandre & al(Org. 2006). Classe Média: Desenvolvimento e crise, Edit. Cortez.

Guimarães, Juarez(2001), "A crise do paradigma neoliberal e o enigma de 2002", in: *São Paulo em Perspectiva*, Vol.15, No.4 pp.136-144.

Hochstetler, Kathryn(2000), Democratizaing process from below? Social movements in the new Brazilian democracy, in: Peter Kinstone & Timothy Power(Eds), *Democratic Brazil: Actors, institutions, and processes* (pp.167-184), Pittsburgh, PA: Univ. of Pittsburgh Press.

Ibope (2002a), "Pesquisa da Opinião Pública sobre assuntos políticos/ administrativos", 2002/11-12. Opp.570. in: eleicoes_2002_pres_ opp570 _00.pdf.

_____ (2002b), "Análise da Pesquisa CNI-Ibope", *Pesquisa CNI/Ibope*, 2002/12. in: eleicoes_2002_pres_opp570_01.pdf.

Keck, Margaret (1992), *The Workers' Party and democratization in Brazi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latin-focus.com

Lacerda, Alan Daniel Freire de (2002), O PT e A Unidade Partidária como problema, *DADOS*, 45(1), pp. 39-76.

Leal, Paulo Roberto Figueira(2005), *O PT e o Dilema da Representação Política: os deputados federais são representantes de quem?*, Edit. FGV.

Lima, Haroldo(2002), *Folha on Line Espeicial, Eleições 2002*, in: haroldolima.com.br

Lowy, Michael & Denner, Arthur(1987), "A New Type of Party: The Brazilian PT",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14, No.4, pp.453-464.

Lula(2002), "A nova mulher brasileira", 2002/10/03, in: http://www.pt.org.br/site/artigos/artigos_int.asp?cod=364

Mainwaring, Scott(1995), *Brazil: Weak parties, feckless democracy,* in: Scott Mainwaring & Timothy Scully(eds.) *Building democraticv*

Institutions: Party Systems in Latin America pp.354-398,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1999), *Rethinking Party Systems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The Case of Brazil*, Stanford University Press.

Mainwaring, Meneguello & Power(2000), *Conservative Parties, the Right,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Mattos, Laura(2002), "A festa é nossa", *Folha de S.Paulo*, São Paulo, p.E-1, 2002/10/30.

Martins, Carlos Estevam, "Vinte anos de democracia?", in: *Lua Nova: Revista de Cultura e Politica* No.64, São Paulo, 2005/01/04

Meneguello(1989) A face dominante da esquerda brasileira: avanços, mudanças e dilemas do PT, in: Fundação Konrad Adenauer(2003), *Eleições e Partidos*, Cadernos Adenauer IV, No.1.

Mercadante, Aliozio, *Brasil Primeiro Tempo: Anáse comparativa do Governo Lula*, Edit. Planeta.

Miguel, Luis Felipe(2006), "From Equlity to Opportunity: Transformations in the Diccourse of Workers' Party in the 2002 Elections", i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33, No.4, pp.122-143.

Miliband, David(1997), *Reinventando a esquerda*, UNESP.

Neves, Fábricio Jesus Teixeira(2005), *Direita, Centro e Esquerda no Brasil: um mapa do Realinhamento Político-Ideológico(1994-2002)*, p.71, UFRJ 석사논문.

Nicolau, Jairo(2003), Eleições Partidos, in: *Cadernos Adenauer,* Ano IV, 2003, No.1.

Nylen, William(2000), The making of a loyal opposition: The Workers' Party and the consolidation of democracy in Brazil, in: Peter Kinstone & Timothy J. Power(Eds.). *Democratic Brasil: Actors, institutions, and processes(pp.126-143),* Pittsburgh, PA: Univ. of Pittsburgh Press.

O Estado de São Paulo, 2002/06/18

PT(1980), *Estatuto do PT,* São Paulo, Brasil: Autor

PT(1991), *O PT e o Marxismo,* São Paulo, Brasil: Autor

PT(1995), *Estatuto do PT,* São Paulo, Brasil: Autor

PT(1998), *Resoluções de encontros e congressos: 1979-1998,* São Paulo, Brasil: Autor

PT(1999), *Histórico institucional de governos e mandatos do PT (1982-1998),* in: Inês Magalhães, Luiz Barreto, & Vicente Travas(Eds.), *Governo e cidadania: Balanço e reflexões sobre o modo Petista de governar*, São Paulo, Brasil, Instituto Perseu Abramo.

PT(2001), *Estatuto do PT,* São Paulo, Brasil: Autor

PT(2002), *Programa de governo do PT 2002,* São Paulo, Brasil: Autor

Petras, James(2002), "Brazil: Neo-Liberalism, crises and electoral politics", Rebelion, 2002/09/08.

_____ & Henry Veltmeyer, "Whither Lula's Brazil? Neoliberalism and 'Third Way' Ideology", In: *Journal of Peasant Studies*, Vol.31, Issue 1 October 2003, pp.1-44.

Power, Timothy(2001), Blairism Brazilian style? Fernando Henrique Cardoso and the "third way" in Brazil,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116(4), pp.611-636.

"Tendências", Opinião Pública(2002), Vol.8 No.2 Campinas out. 2002, ISSN 0104-6276 versão impressa

Resoluções de Encontros e Congressos(1979-1988), São Paulo, Fundação Perseu Abramo, 1998.

Rubens, Figueiredo, & Ciro, Coutinho(2003), "A eleição de 2002, CEPAC - Pesquisa e Comunicação", *Opinião Pública*, Campinas, Vol.IX, No2. Outubro, 2003, pp.93-117.

Rubim, Antonio Albino Canelas ,""Cultura e Politica na Eleicao de 2002: As estrategicas de Lula Presidente", in: http://www.unb.br/fac/comunicacaoepolitica/Albino.pdf.

Sader. Emir(2002a), "La raíz de la crisis brasileña", in: *La globalización económico-financiera: su impacto en América Latina*, Buenos Aires, CLACSO, pp.39-47.

_____ (2002b), “A era pós-Cardoso”, in *LE MONDE diplomatique*, 2002/10.

Samuels(2001), “Money, Elections, and Democracy in Brazil”, in *Latin American Politics and Society*, Vol.43. No.2., p.31.

_____ (2004a), “From socialism to social democracy: Party Organiz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kers′ Party in Brazil”, in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 20, No.10, 2004/03, pp.1-26.

Silva, Luís Inácio da(2002), *Carta para o povo brasileiro*, in: http://www.pt.org.br

Singer, Andre(1995), *Identificação ideológica e voto no Brasil: o caso das eleições presidenciais de 1989 e 1994*, São Paulo, 박사논문, FFLCH/USP

_____ (2000), *Esquerda e direita no eleitorado brasileiro*, São Paulo: USP

_____ (2001), *O PT*, São Paulo, Edit. Publifolha.

Soares, G.A.D.(1973), *Sociedade e política no Brasil*, São Paulo: Difel.

Veja, 2002/06/26, 2002/10/02, 2002/10/23

논문투고일자: 2007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자: 2007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12월 10일

최금좌(Choi, Keum-Joa)
위덕대학교
E-mail: felizchoi@kornet.net